문화광장

홍 정 호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지난 달 나는 편곡자로서 김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가 기획한 '나는 불후의 편곡자'에 제주민요 '너영나영'의 편곡으로 참여했다. 일등에게 수여하는 30인치 TV를 은근 기대 했지만 관객평가단의 투표에 의해 오돌또기를 편곡한 제주빌레앙상블의 김남훈 아티스트가 일등의 영예를 안았다.

처음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의 기획자 오성종 첼리스트가 제주민요를 바탕으로 편곡 의뢰가 있었을 때 잠시 주저 했었다. 좁은 제주도에 다 알고 지내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친구부터 후배 작곡가랑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획자에게 설득돼 참여하겠노라고 답하기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이 오케스트라를 도구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준비된 방향을 구체화하고 진정성 담긴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는 1984년 제주대학교 김인규 교수에 의해 창단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공연전문단체다. 제일 오래 된 단체라고는 하는데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하는 혈기 왕성한 청년의 단체다. 실제로도 그렇다. 임대흥 지휘자와 오성종 기획자 그리고 단원들이 혁신의 접근법을 가지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관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준비된 무대공연, 하나의 결과물은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구현된 무대는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그 가치를 증명한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단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팀워크 프로젝트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공연자, 공간 운영자와 최종적으로는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기획자는 예술가와 관객을 이어주는 존재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며 미래지향적인 인물들이다.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서 첫눈에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 혁신과 균형감등 여러 요소와 조건을 설정하며 미래에 대한 결과까지 구현해 나간다.

일반 공연단체나, 아마추어 동호회로부터 주민자치센터까지 기획자가 필요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문화예술 유관 기관에서 해마다 문화 기획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예술 단체에서부터 아마추어 단체의 확대와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제주문화예술 생태계의 주요한 고리 역할을 담당해 주었으면 한다. 문화예술을 최종적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투영할 수 있는 역할자이다. 크고 거대한 실행이 아니라 소소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제주도민의 삶을 예술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제주도민을 위한 기획자가 필요하다.

외도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하며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도구로 마을 공동체성을 구현하고 있는 현장이다. 구좌읍이 그랬다. 표선면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제주의 마을마다 시민연극단, 합창단,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상상한다. 제주도민과 함께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며 제주에 생동감을 가져올 실제적 참여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음악가로서 음악애호가를 만나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나에게는 올해가 더욱 그러하다.

열린마당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 대학에서부터

김 수 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산업의 발전, 생활의 편리함이 증대되는 만큼 발생하는 쓰레기는 방대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1회용품은 편리함의 상징이자 쓰레기 발생량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 4월 쓰레기 대란 이후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나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이 하달돼 우리 주변에서 생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 컵을 당장 내일부터 쓰지 않는 것은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하루에 컵 하나만 사용하기처럼 조금씩 변화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 주변 환경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해 볼 만하다.

플라스틱이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문제라는 공감을 얻자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텀블러를 세척하고 휴대하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빨대 대신 컵으로 바로 마시는 방법에도 익숙해지려 노력하고 있다.

텀블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면서 불편은 더 이상 불편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반복하면 습관이 돼 익숙해지듯 플라스틱 줄이기는 습관이 돼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의 주역인 젊은이들의 생활공간인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플라스틱 안 쓰기를 우선적으로 실천할 때 그 습관이 이어져 지구를 지키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제는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미래세대에 보다 나은 환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구 환경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일회용 컵, 빨대, 비닐봉지 같은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익숙했던 일회용품들과 완전히 이별할 때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문화의 달' 행사 언론 협조 요청 눈길

고희범 시장, 적극 홍보 주문

○…고희범 제주시장이 7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앞두고 언론의 협조를 요청해 눈길.

고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8~20일까지 산지천·관덕정·칠성로 아케이드·제주 성지 등 제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

이어 "시내에 행사 현수막을 걸어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며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문화도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언론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 고대로기자

구좌농협, 재해 농민 특별지원

○…구좌농협이 최근 집중호우와 3차례의 태풍, 우박·돌풍에 의한 재해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

구좌농협은 2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 지원과 구매외상매출미수금 상환기간을 3개월 연장, 기상재해 피해 조합원 지원을 강화.

윤민 조합장은 "유례없는 기상재해로 농가소득 감소와 농업경영비가 늘며 조합원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행정 및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아트앤저지' 사실상 무산

○…이달 12~20일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트앤저지 2019'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로 개막 행사가 취소되는 등 사실상 무산.

이 기간에는 김창열미술관 야외에서 갈옷 패션쇼, 제주현대미술관 잔디밭에서 아트마켓 등이 개최될 계획이었고 입주작가 합동 전시도 예정.

제주도 관계자는 "행사장 주변에 축산농가 50곳이 분포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에 따라 야외 행사 등을 취소했다"며 "대신 갤러리 자체 전시는 일정대로 열린다"고 설명. 진선희기자

사설

위기의 제주농업, 특별지원책 마련해야

올해같이 짓궂은 날씨는 없을 겁니다. 기상 악화로 한해농사를 거의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이례적인 가을장마에 태풍이 연달이 덮치면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달새 태풍이 세차례나 강타했으니 배겨날 농작물이 있겠습니까. 태풍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 피해가 워낙 커서 국회 국정감사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이자감면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기준에 따르면 제주도는 자연재난 피해 규모가 90억원 이상이 됐을 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액은 11억원, 제17호 태풍 타파는 4억원으로 추정돼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장마에 이어 태풍이 세차례 들이닥치면서 제주농가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농작물 폐작이나 침수된 농경지 피해 면적이 무려 1만8813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재난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내 농민단체가 "제주농업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한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시름에 빠진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만 의존해서는 제주농업의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년간 재해피해 1000억… 철저 대비가 답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제주도는 해마다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에도 태풍 3개가 연달아 내습하면서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시설물 파손과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태풍이나 폭설,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액만도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른 피해복구비는 두 배가 넘게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제주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모두 10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88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설 피해 106억 원, 강풍 47억 원, 호우 6억 원 순입니다. 피해복구에 투입된 예산만 모두 2044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 피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한 해 평균 10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에는 200억 원 이상 쏟아붓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방재대책도 관행적으로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기상 여건을 감안한 방재대책 마련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는 태풍뿐만 아니라 폭설 등 이상기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재대책은 일상적인 재해요소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화, 첨단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로서는 기존의 방재대책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獎學生 選拔公告

재단법인 광산김씨제주특별자치도장학문화재단 정관 제4조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2조에 의하여 **2019학년도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19. 10. 14 ~ 2019. 11. 22 까지

▣ 신청 대상자
광산김씨 제주도 출신 종친 자녀로서 4년제 대학 및 4년제 학과 재학생 중 생활이 곤란한 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1학기 성적 3.0 이하인 자 및 현재 4학년은 제외함)

▣ 제출서류
1. 신청서(본재단 소정양식) ……1통
2. 사진(소명함판) ……2매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2019학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3.0 이상)……1통
6.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1통
7. 해당 학교 또는 타 기관 장학금수혜 확인서 …1통
8. 자기소개서(본재단 소정양식) ……1통
9. 부모님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2통
10. 본인통장사본 ……1통

(부모님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 명의의 납세증명서 각 1통씩 총 2통이며, 비과세일 경우는 비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산세 부모합산 70만원미만**

▣ 접수 및 문의처
http://jejukwangsan.com 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신청바랍니다.
주소 : 제주시 노연로 125(연동 293-14)
(재)광산김씨제주특별자치도장학문화재단
전화 : 사 무 실 743-7500
상임이사 김성배 010-3699-0045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10월 일

財團法人 光山金氏濟州特別自治道獎學文化財團
理事長 金 大 鉉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494,244㎡(분할매매 가능)
•2차선 도로접 시멘트 도로접
기타문의 전화요망
☎ 010-5110-566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양배추·브로컬리 무우 양파 농가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양배추·브로컬리 양파·배추 (500㎖당 500배 희석)	• **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 자	• **1차 살포** : 싹이 10~15㎝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 우	• **1차 살포** : 싹이 10~15㎝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 늘	• **소독** :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